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062)970-0114 | 전남과학대학교 061)360-5050

광주교육청 승진순위 비공개 논란 ▶7 | 김수공 농협 농업경제대표 인터뷰 ▶9 | '아시아 문화 원류' 인도의 화신론 ▶13 | 돌아온 피겨여왕 김연아 ▶14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445호 1판 2013년 3월 18일 월요일 (음력 2월 7일)

화약고 여수산단 | 상 끊이지 않는 사고 왜?

46년된 시한폭탄…안전은 하청업체 몫

석유화학업체 밀집 터지면 대형참사 종합방제센터 시급

관련기사 2·3·6면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업단지 내 폭발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수산단 조성 이후 4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부실한 안전 대책에 따른 대형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해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여수산단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대부분이어서 자칫 '화약고'가 터질 경우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20개 기업 가동 …대형사고 끊이질 않아=여수 산단에는 GS칼텍스·LG화학·여천NCC·호남석화·금호석화·한화케미칼·남해화학 등 모두 220여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여수산단은 지난 1967년 호남정유 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조성됐다. 이후 이곳에선 대형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1989년 10월 럭키화학 공장 폭발로 16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995년 2월엔 유독가스 누출로 15명이 다치고 80명이 긴급대피했다. 2000년 8월엔 호성케멕스(주)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해 6월엔 한국실리콘 가스 누출 사고로 49명이 다쳤다. 그간 여수산단에서 200건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사상자만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 발생 나흘째인 17일 폭발이 일어났던 사일로(silo·저장탑)의 외벽 배관이 엿가락처럼 휘고, 검게 그을려있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난 14일 밤 공장 인근 CCTV에 담긴 폭발 사고 순간.

◇'안전불감증' 인재(人災) 되풀이=여태껏 발생했던 여수산단 내 각종 사고는 사업장 안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가 대부분이었다.

사고 10건 중 6건 이상은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로, 대형 공장들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엔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는 반면, 운영은 소홀하게 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시설보수 등 현장작업은 사외 하청업체들이 맡아 하는데, 사고도 주로 이들이 일하는 작업현장에서 발생한다. 하청업체는 모기업처럼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 무자격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바뀌고 기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대형 재난사고 위험=여수산단은 지역에서 '화약고'로 불린다. 이는 공장 상당수가 유독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시설도 노후화된데다, 유독물질을 다루는 공장들이 밀접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220곳 중 석유화학업체만 60곳이다. 여수산단 내 안전을 전체적으로 협의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유해화학물·환경오염·독성가스 등 다원화된 있는 관련법을 일원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산단 폭발사고 6명 사망·11명 중경상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나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부실한 안전 관리 및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4일 밤 8시 50분께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사일로 보수 작업을 위해 현장에 있던 용접배관회사 유한기술 소속 백중만(43), 조계호(38), 김경현(40), 서재득(54), 김종태(53), 이승필(42)씨 등 6명이 숨졌고 문진목(55)씨 등 11명이 광주와 서울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문씨는 "사일로 아래쪽에서 갑자기 '펑' 소리가 들리더니 곧바로 화염이 치솟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를 통해 3초 간격으로 두 번의 폭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폴리에틸렌 중간 제품인 분말 상태의 플러프(fluff)를 저장하는 저장탑(silo·사일로)에 맨홀을 설치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림산업측은 매년 1개월간 실시하는 정기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공장 가동을 멈추고 정비에 들어간 상태였다.

대림산업 화학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저장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대형 참사를 막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대림산업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각각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원인 및 공장 관리자들의 업무상 과실 유무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17부3처17청·종합유선방송 미래부 이관…국회 20일 처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 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여야는 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부로 이관하는 대신에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공정성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파·주파수 업무는 미래부가 총괄하되 통신형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 업무는 방통위에서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박근혜 정부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최종 합의했다.

미래창조부가 ICT(정보통신기술) 신 성장을 위해 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게 (가칭) ICT진흥 특별법과 규제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하는 내용을 여야는 합의문에 포함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독립성 유지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두기로 했으며, 원자력 기초 R&D(연구개발)은 미래창조부 산하에 두고, 원안위 위원은 국회 여야 동수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농림축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4대강 사업도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 제 도입에도 합의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신설하고 금융 감독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인사청문제도도 개선키로 했으며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은 3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국회내 발의키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인사 2명…'대탕평'은 없었다

17개 외청장·금감원장 인사

검찰총장 채동욱
국세청장 김덕중
경찰청장 이성한
금감원장 최수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17개 정부기관 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4면〉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이 발표한 인선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채동욱(54) 서울고검 검사장이 내정된 것을 비롯해 국세청장에 김덕중(54) 중부지방국체청장, 경찰청장에 이성한(57) 부산지방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에 최수현(58)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윤 대변인은 "이번 인선의 기준과 특징은 전문성 중시에 있다"며 "주무부서에서 청장이 내려왔던 것을 최소화하고 내부 차장을 적극 승진발령했으며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채동욱 검찰총장

김덕중 국세청장

이성한 경찰청장

이번 인선 결과, 4대 권력 기관장에 영·호남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었을 뿐 아니라 18명 중 단 2명이 호남 출신이어서 호남 인사 중용은 또다시 공염불이 됐다. 또 경찰청장은 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것과 달리 임기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교체됐다.

또 관세청장은 백운찬(57)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은 민형종(55·광주)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은 박형수(46·화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병무청장은 박창명(63) 경상대 초빙교수,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걸(56) 국방부 차관이 각각 발탁됐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장은 남상호(60) 대전대 대우교수, 문화재청장은 변영섭(62) 고려대 교수, 농촌진흥청장은 이양호(54)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산림청장은 신원섭(54) 충북대 산림학과 교수, 중소기업청장은 황철주(54) 벤처기업협회 공동회장이 각각 기용됐다. 특허청장에는 김영민(55) 특허청 차장, 기상청장은 이일수(57) 기상청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충재(58) 행복도시 건설청 차장, 해양경찰청장은 김석균(48) 해양경찰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평생 소모품 무상서비스
062)226-0001
Mercedes-Benz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